

페퍼스가 달라졌다... 벌써 구단 최다승 타이

14일 홈경기서 GS칼텍스에 3-0 셋아웃 승... 14경기만에 5승 테일러, 팀 내 최다 17득점... 장위·박정아 10점씩 '고른 활약'

페퍼저축은행 AI페퍼스가 GS칼텍스를 꺾고 구단 최다승 타이 기록을 세웠다. 페퍼스는 지난 14일 광주페퍼스타디움에서 열린 도드람 2024-2025 V리그 3라운드 경기에서 GS칼텍스 서울Kixx에 세트스코어 3-0(25-18 25-13 25-16) 셋아웃 승을 거뒀다. 페퍼스는 이날 승리로 승점 3점을 더하면서 5위(5승 9패·승점 15) 자리를 굳혔다. 지난 2021-2022시즌 3승, 2022-2023시즌과 2023-2024시즌 5승에 그쳤던 페퍼스는 올 시즌 14경기만에 5승을 기록했다. 리시브 효율에서는 페퍼스가 23.91%, 상대가 29.17%로 조금 뒤쳐졌지만 페퍼스는 팀 공격 성공률 50.55%로 GS칼텍스의 38%에 비해 크게 앞섰다. '감 잡음' 외국인선수 테일러가 팀 내 최다 17득점(공격 성공률 50%)을 올리며 맹활약했고 이한비는 11점, 장위·박정아도 각각 10점씩을 기록하며 팀 승리를 이끌었다. 특히 장위가 2개, 테일러·이한비·박정아·하혜진·이원정도 서브에이스를 성공시키면서 서브 득점 7-2로 분위기를 가져왔다. 블로킹 득점에서도 8-0으로 앞선 페퍼스는 범실에서는 7-14를 보이며 전체적으로 GS칼텍스에 앞섰다. 페퍼스는 이날 모든 세트에서 상대에게 20점 문턱을 허용하지 않으면서 경기 흐름을 이끌었다. 1세트는 쫓고 쫓기는 접전 양상으로 흘러갔다. 12-14에서 장위의 서브 득점 성공 후 연속 득점

으로 이어지면서 18-14까지 전세가 역전됐다. 24-17로 크게 앞선 상황에서 박정아의 오픈이 네트에 걸렸지만, 장위가 속공으로 1세트를 가져왔다. 페퍼스는 2세트와 3세트에서도 리드를 내주지 않고 경기 흐름을 가져갔다. 2-0으로 시작한 2세트, 테일러·이한비·박정아·장위의 공격이 성공하며 21-7까지 점수 차가 벌어졌다. 페퍼스는 탄력받은 장위의 연속 득점에 이어 이원정 대신 투입된 박은서의 쿼오픈으로 2세트를 마무리했다. 승리를 눈앞에 둔 3세트 22-14, 페퍼스가 실바에 연달아 2점을 내줬지만 하혜진의 블로킹과 박정아의 연속 득점으로 완벽한 승리를 거뒀다. 한편 페퍼스에 셋아웃 패배를 기록한 GS칼텍스는 10연패(1승 13패·승점 6) 수렁에 빠졌다. 지난 11일 복귀전을 치른 상대 외국인 선수 실바가 양 팀 최다인 23득점(공격 성공률 45.83%), 리시브 100%를 기록하면서 고군분투 했지만 이주아 5점(29.41%), 유서연 3점(25%) 등 국내 공격수들이 모두 한 자릿수 득점에 그치는 등 좀처럼 부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이날 승리로 다시 한번 이번 시즌 연승을 잇게 된 페퍼스는 다음 경기에서 단일 시즌 최다승을 노린다. 팀의 새로운 기록에 도전하는 페퍼스는 오는 19일 오후 7시 김천실내체육관에서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와 대결한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페퍼저축은행 AI페퍼스는 지난 14일 도드람 2024-2025 V리그 3라운드 홈 경기에서 GS칼텍스 서울Kixx를 세트스코어 3-0으로 완파하며 단일 시즌 최다승 타이 기록을 세웠다. 득점에 성공한 후 하이파이브하는 박정아(왼쪽)와 테일러. <KOVO 제공>



올림픽 본선 진출권에 도전하는 여자 아이스하키 대표팀. <대한아이스하키회 제공>

한국여자 아이스하키, 8년만의 올림픽 도전

16일 폴란드와 예선 최종전... 승리해야 최종 예선 출전

8년 만의 올림픽 본선 진출을 노리는 한국 여자 아이스하키 대표팀이 2026 동계 올림픽 최종 예선에 도전한다. 김도훈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세계 18위)은 16일(한국시간) 폴란드 비돔에서 열리는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3차 예선 F조 최종전에서 개최국 폴란드와 대결한다. 이번 3차 예선에서 폴란드(세계 20위), 멕시코(25위), 대만(26위)과 한 조에 속한 한국은 앞서 멕시코전에서 6-0(12일), 대만전에서 4-0(13일) 승리를 거둔 바 있다. 최지연이 3골 1도움으로 4개의 공격 포인트를 쓸어 담은 가운데 이소정과 박종아(이상 수비수)가 공격 포인트를 3개씩 수확했다. 2승을 거두면서 10골을 넣고 한 골도 내주지 않은 한국은 개최국 폴란드(2승, 14득점·1실점)에 이어 조 2위를 달리고 있다.

대표팀은 폴란드전에서 승리하면 F조 1위 자격으로 내년 2월 일본 홋카이도 도마코마이에서 열리는 올림픽 최종 예선 출전권을 따낸다. 올림픽 최종 예선은 일본과 스웨덴, 독일 3개국에서 진행되고, 각 조 1위만 올림픽 본선 진출권을 확보한다. 한국은 최종 예선에 출전하면 일본(7위), 중국(12위), 프랑스(13위)와 차례대로 맞붙는다. 올림픽 본선에 진출하려면 이들 3개국과 경기 가운데 최소 2승은 거둬야 한다. 한국 여자 아이스하키는 안방에서 열린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유일하게 올림픽 무대를 경험했다. 당시 개최국 자격으로 북한과 남부 단일팀 '코리아'를 이뤄 출전했던 한국은 5전 전패에 2득점, 28실점의 성적표를 남겼다. 2022 베이징 올림픽 최종 예선에서는 3전 전패해 탈락했다. /연합뉴스

안폴리네 배드민턴 안세영, 3년만의 왕중왕전 정상 탈환 실패

월드투어 파이널 中 왕즈이에 져

배드민턴 세계랭킹 1위 안세영(삼성생명)이 3년 만의 왕중왕전 정상 탈환에 실패했다. 안세영은 14일 중국 항저우의 올림픽스포츠펀터에서 열린 HSBC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파이널 2024 여자 단식 준결승전에서 중국의 왕즈이(2위)에게 0-2(17-21 14-21)로 졌다. 2021년 이후 3년 만에 정상 탈환에 나섰던 안세영은 준결승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1게임 9-12로 뒤지던 상황에서 연속 4실점 해

주도권을 잃고 게임을 내준 안세영은 2게임 중반까지 시소게임을 펼쳤으나 14-17에서 4점을 내리 잃어 경기에서 패했다. BWF 월드투어 파이널은 올림픽 챔피언과 한 시즌 열린 국제 대회 성적 상위권 선수 등 단 8명의 선수(팀)만 참가하는 왕중왕전 격의 대회다. 종목별 8명의 선수는 4명씩 2개 조로 나뉘어 조별리그를 치른다. 각 조 2명만 4강에 올라 그해 최강자를 가린다. 안세영은 지난 9월 2년 연속 BWF가 선정하는 올해의 여자 선수상을 받았고 동료 선수들이 뽑은 올해의 여자 선수로도 선정됐다. /연합뉴스



광주체고 역도부, 중고연맹회장기 '금빛 활약'

남고부 황성민·여고부 김체량 금메달... 18일까지 경기

2024 한국중고연맹회장기 역도대회에서 광주체고 역도부가 금빛 활약을 펼쳤다. 황성민(2년)은 남고부 73kg급 1위에 올랐다. 황성민은 인상에서 110kg, 용상에서 127kg을 들어 올렸고, 합계 237kg을 기록하면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김체량(1년)은 여고부 87kg이상급에서 정상을 차지했다. 인상 100kg, 용상 128kg으로 각 1위에 오른 김체량은 합계 228kg으로 금메달을 확정했다. 김수빈(1년)은 여고부 71kg급에서 은메달을

획득했다. 김수빈은 인상에서 65kg으로 2위, 용상에서 85kg으로 3위를 기록했고, 합계 150kg으로 2위에 올랐다. 여고부 81kg급에 출전한 이하선(1년)은 인상 64kg, 용상 84kg, 합계 3위를 기록하며 동메달을 더했다. 한편 이번 대회는 충남 서천 군민체육관에서 지난 12일 개막했으며, 고등부에 이어 중등부 경기가 18일까지 이어진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박경환 전남도태권도협회장 당선



박경환(사진) 전남도태권도협회 상임부회장이 지난 7일 열린 제22회 전남도태권도협회 회장 경선에서 당선돼 내년 1월 취임한다. 박 신임 회장은 전남도태권도협회 전문이사 등 오랜 기간 협회에서 행정 업무를 맡아왔으며, 시군협회와도 원활한 관계를 유지해 와 협회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 신임 회장은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과 능력을 다해 협회의 안정적인 변화와 체계적인 혁신을 이끌어내겠다"며 "경선을 거쳐 회장에 당선된 만큼 무한한 책임을 느끼며 회원들이 협회를 더욱 신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즐거움

문화 산책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GAC 공모전시 화첩에 무등을 담다 : 조양희 개인전

일시 : 2024-12-6(금) ~ 2024-12-29(일)
공연 있는 날 10:30 ~ 19:30
공연 없는 날 10:00 ~ 18: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 062-613-8357

2024 광주상설공연(12월)
일시 : 2024-12-01(일) ~ 2024-12-22(일)
매주 토요일-일요일 오후 5시
*12.13(금) 오후 7시 특별공연 (송년의 밤)
*12.20(금) 오후 7시 특별공연 (명인 협연의 밤)
장소 : 광주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9, 8372